북스

Books

‘나’로 살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지음

만약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보자. 우선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을 만든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엄마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특징을 알기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고작 엄마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체특징이나 옷차림, 잃어버린 시간과 장소를 떠올리는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고심 끝에 ‘흰머리가 섞인 짧은 파마머리를 한 60대 여성’이라는 문구를 만들었다 치자. 이런 사람을 길거리에서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엄마일 확률은 희박할 것이다. 흔하디 흔한 우리 시대 엄마들의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신경숙이 지금이라도 엄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위로해보라며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펴냈다.

저자는 지난 겨울 일흔 넘은 어머니와 단둘이 보냈던 보름간의 행복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 지난 여름까지 ‘창작과 비평’에 연재한 뒤 이번에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소설은 가족을 위해 늘 자신을 희생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엄마가 어느날 갑자기 실종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가 아닌 ‘너’란 낯선 2인칭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소설 속 ‘너’의 이야기가 현실 속 ‘나’의 이야기와 오버랩이 되기 때문이다.

소설은 딸이자 소설 속 ‘너’, 큰 아들이자 너의 오빠, 남편이자 너의 아버지, 아내이자 너의 엄마까지 네 사람의 시선에서 전개된다. 엄마를 포함한 가족들의 기억은 퍼즐처럼 짜맞춰지면서 ‘엄마’의 존재를 완성해 간다. 그리고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뒤에야 자신들이 엄마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골에서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온 엄마는 서울역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 항상 자신보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던 남편의 손을 놓쳐버리고 만다. 엄마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전단지를 만들고, 신문광고를 내면서 엄마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작가 자신이 투영된 소설가 큰 딸은 엄마가 실종됐던 당시 북페어 참석차 중국에 가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밀쳐냈던 순간들을 후회한다.

검사를 꿈꾸다 시험에 낙방한 뒤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큰아들은 “청년시절에 꾼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의 꿈을 좌절시킨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자책한다.

끊임없이 집 밖으로 나돌다 제사 때가 되면 나타났던 남편도 “아내에게 미역국 한 번 끓여줘본 적 없으면서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은 어찌 그리 당연하게 받기만 했을까”하고 후회한다.

책에서 유일하게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4장 ‘또 다른 여인’에서 엄마는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내비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나’로 살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속마음을 담고자했던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구개월째다’로 시작되는 에필로그로 마무리된다. 큰 딸은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상 앞에서 두 팔로 아들의 주검을 끌어안고 있는 성모상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차마 하지 못한 한 마디를 전한다. “엄마를, 엄마를 부탁해”라고.

〈창비·1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시와 만화로 읊은 사랑 詩 24편

시와 만화가 만나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한국 현대시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레몬트리’는 사랑에 관해 읊은 24편의 시와 만화가 어우러진 만화 시집이다.

수록된 시는 함성호 시인의 표제작을 비롯해 김용택의 ‘약이 없는 병’, 정호승의 ‘모른다’, 김수영의 ‘사랑’, 이성복의 ‘어두워지기 전에·1’, 천상병의 ‘강물’, 마종기의 ‘전화’, 안도현의 ‘그대에게 가고 싶다’ 등이다.

시집 ‘설탕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었다’를 발표한 최치언씨가 스토리를 썼으며 변기현씨가 그림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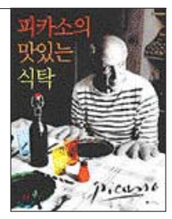
〈문학세계 애니북·1만1천원〉

/김미은기자 mekim@

천재화가에게 음식은 예술과 사랑의 원천

피카소의 맛있는 식탁

에르민 에르셰 지음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1881~1973)에게 인생은 맛있는 축제였던가 보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에르민 에르셰가 쓴 ‘피카소의 맛있는 식탁’은 음식과 사랑과 예술이 뒤범벅된 피카소의 삶을 담고 있다. 음식이 천재 예술가의 삶에 어떻게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그의 예술과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군침이 샘솟게 하고 상상력 넘치는 문장으로 그려낸다.

음식은 피카소에게 빛나는 예술가적 상상력의 뿌리였다. 피카소만의 독특한 색과 선, 조형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카탈루냐 산골 마을에서 보고 먹고 느꼈던 야생의 식재료에서 영향을 받았다. 숲 속 그림여행의 경험들이 천재적 영감의 원천이 됐고, 사냥으로 잡은 산토끼나 비둘기로 만든 소박한 음식들은 그 자양분 역할을 톡톡히 했다. 피카소가 훗날 “내가 아는 모든 것은 필라레스의 마을에서 배웠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저자는 피카소의 이 시절 그림에서는 넓적다리 고기와 갓 구워낸 따뜻한 빵 냄새가 풍긴다고 표현한다. 은빛 도는 연노란 색깔, 피카소의 입체파 작품 대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옅은 초록색도 이때부터 모습을 드러낸다.

음식은 피카소에게 예술 그 자체였다. 그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놀라운 관찰력으로 그림을 그렸다. 단골 카페에서 마시다 남은 커피로 냅킨에 그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린피스를 곁들인 비둘기 구이는 입체파 작품이 됐고, 생선뼈는 도자기 작품 속에 새겼다. 그에게 아들과 딸을 안겨준 프랑수아즈 질로와 즐겨 다녔던 식당의 여주인은 ‘성게를 먹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음식은 또 천재화가에게 사랑 그 자체였다. 첫 번째 연인 페르낭드가 베이컨과 채소만으로 푸짐하게 끓여내던 스튜는 그에게 항상 그리움이었다. 마지막 아내 자클린 로크가 즐겨 만들던 뱀장어 마틀로트는 그녀의 요리솜씨를 기리는 한 점의 작품이 됐다. 그는 여자를 사랑하듯 음식을 사랑했다.

음식은 피카소에게 축제이기도 했다. 무명시절 그의 아트리에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의 현장이었다. 말년에는 지인들을 초청해 에스파냐 음식인 ‘파에야’를 즐기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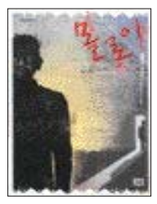
미술평론가 유경희는 “식탁은 한 인간이 영혼의 옷을 벌거벗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이 책은 천재 예술가의 벌거벗은, 감각적인 영혼을 보여주는 성찬”이라고 말했다. 〈예담·1만8천원〉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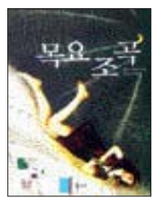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삶과 인생, 깨달음을 주제로 엮은 시집. 저자가 38년 교편생활을 돌아보며 어느덧 60세가 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삶과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마음의 숲·7천원〉

▲유경의 죽음 준비학교=사회복지사 유경이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해 강의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살펴본 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궁리·1만2천원〉



▲몰로이=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이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으로 유명한 사뮈엘 베케트의 소설. ‘말론 죽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와 함께 소설 3부작으로 불리며 1950년대 프랑스 문학사에 누보로망(nouveau roman·새소설)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와락=시인, 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끝별의 네 번째 시집. ‘불멸의 표절’로 시작해 50여편의 시가 담겼다. 자연, 사람, 사랑, 사회, 역사, 우주까지 다양한 대상을 ‘표절’이라는 테마로 풀어냈다. 〈창비·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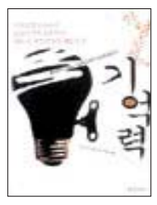


▲목요조곡=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여성작가 중 한 명인 온다 리쿠의 미스터리 소설. 목요일의 모음곡(組曲)’이라는 뜻으로 목요일을 좋아했던 한 소설가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목요일, 같은 장소에 모인 다섯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북스토리·1만1천원〉

▲춤과 그들=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를 비롯해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춤꾼 서른 명의 춤과 인생 이야기. 경향신문 기자인 유인화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우리 춤의 명맥을 지켜온 예인들의 춤에 대한 열정을 기록했다. 〈동아시아·1만6천원〉

▲한국의 영화감독 7인을 말하다=한국과 이탈리아 영화평론가들이 저술한 총 8편의 감독론.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홍상수, 김기덕, 임상수, 김지운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한국영화감독 7인에 대한 양국 평단의 견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본북스·1만3천원〉

▲파리로 간 한복쟁이 이영희=한복으로 파리, 뉴욕 패션무대 진출에 성공한 이영희의 30여 년간에 걸친 도전기를 담았다. 한복을 기모노의 아류로 인식하던 이들에게 우리 옷을 소개하고 호응을 끌어내기까지의 시련 등 일화들이 담겨있다. 〈디자인하우스·1만2천800원〉



▲안녕하세요, 기억력=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알츠하이머 전문의, 뇌과학자 등 전문가들이 기억에 관한 임상실험과 연구결과를 실었다. 어떻게 기억하고 망각하는지, 남녀의 기억력 차이, 알츠하이머 신드롬까지 기억에 관한 갖가지 궁금증을 풀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

수완 롯데쇼핑 옆 최고상권!!
분양 펠리스 타워 임대
수완지구 25,000세대 아파트 입주시작

층	면적	권장업종
1층	15평~200평	금은방, 안경, 커피숍, 약국, 제과점 등 판매시설
2층	200평	웨미리식당,병원,단란주점,노래방
3~6층	각200평	병,의원, 학원, 독서실등
7층	200평	휘트니스 클럽
8층	50평	스카이 라운지

※면적 15평 부터 분할가능

펠리스 타워 분양사무실 062) 954-0031 010-7723-1033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함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건축상담

토지매매
▶수완지구 333-1(명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수완지구 단일평형 170세대 정문앞 이주자택지 330㎡ 3.3㎡당 450만원
▶광산구 수완동 35m 대로변 자연녹지 답 1,762㎡ 4,231㎡ ㎡당 70만(분할가)
▶광산구 신촌동 광송간대로변 지하철역 앞 상업지역 대지 286㎡ 매가 2억 9,000만
▶광산구 유계동 답4,300㎡ ㎡당 41,000원
▶광주 북구 동림동 6차선 대로변 대지 1,533㎡ 3.3㎡당 480만원

상가매매
▶운남동 주공9단지앞 PC방 183㎡(시비 있음) 매매가2억 3천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양)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리바게뜨 입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입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正心 正視 正行
☎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추천물건
▶장성 백양사입구 식당 및 호텔대지2,645㎡ 건958㎡ 매17억
▶보성율포해수욕장 민박집 및 최 고의 전원주택 바닷가 전망,경관 최고의 자리.. 대 882㎡ 건172㎡ 매가 3억2천
▶곡성 곡성읍 구원리 관리지역 9,917㎡ 매가 5억4천만 공장, 창고, 기타용도적합(큰도로접 주변시세 이하)
▶담양 봉산면 연동리 전1,676㎡ 농림지역,차량진입가능,주말농장등, 소액투자적합, 매가3천6백만

토지매매
▶담양 대덕면 갈전리 대(전포함) 5,573㎡ 관리지역 차량진입가. 가든,펜션,전원주택 적합 매가 1억 8천만
▶담양 수북면 대방리 창고부지10,925㎡ 2차선도로접 매가 8억3천만
▶전남 무안읍 성남리 주거지역 4차선접 1,474㎡ 매가 3억2천만
▶담양 금성 대곡리잡종지5,057㎡ 2차선도로접,매가3억1천만
▶담양 고서 분향리 전2,710㎡ 2차선도로접,건축허가 가(그린벨트) 광주댐 부근 매가4억5천만

토지매매
▶전남 화순 춘양면 용두리 (대,전,임)76,003㎡ 매11억5천만 관리지역, 전원주택지등 적합.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전,임) 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7,626㎡전망좋음,공장등가.매가4억5천만
▶담양 금성면 대곡리 2차선접 관리지역 대 3,305㎡ 매가 2억4천만 (분할 매매가)
▶담양 금성면 대성리 관리,농림임 39,669㎡ 매가 1억8천만
▶나주 문평면 대도리 대,임 3,758㎡ 주택 1동 매가 1억8천만 전망좋음
▶화순읍,삼천리 답 4,245㎡ 2차선도로접 매가4억9천만
▶담양 대덕면 입석리 관리,농림임 55,537㎡ 매가 5억

상가등
▶남구 월산동 지하1층 지상3층 대514㎡ 건866㎡ 매가 8억7천만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부근 4차선접 대181㎡ 건326㎡ 매가 2억5천만

♣ 필요하신 각종 토지를 용도에맞춰 최선을 다해 구해드립니다.
♣ 토지 투자물건 다량 보유!! ♣ 24시간 전화상담및 물건 접수!!

한길부동산중개
상무지구518공원앞 062)385-2800, 011-607-1235

쌍촌동 상무지구 518공원부근 중심상권도로변 3층건물
대240㎡(72.6) 건340㎡(103) 수입통나무 레스토랑
추천업종 :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치킨호프전문점 최적합
매매가 : 5억7천만원(융2억7천만포함),현금매수액3억

상무지구 매물구함
건물 • 토지 • 상가 임대 • 점포매매